

2026
03.12

주간 제464호

중국 창업

WEEKLY 뉴스
CHINA 창업
KIC 뉴스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

문의 | +86.10.6780.8840 | info@kicchina.org

CONTENTS

WEEKLY 뉴스

세계 최초, 아너 로봇폰 '2026 세계이동통신대회(MWC)'에서 공개	1
중국 과학기술 분야 성과 잇따라, 국제적 관심 집중	2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6억 명 초과, 인공지능 특허 보유 규모 세계 최대 수준 기록	3
전국 양회 첫 '장관급 기자회견', AI·휴머노이드 로봇 등 주요 메시지 공개	4

CHINA 창업

[산업분석] 출하량의 90% 차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가속화 배경	7
[산업분석] 집단 지능으로 여는 새 시대, '가치 중심 글로벌 진출'에 나선 중국 기업들	10
[기업분석] 범용 대형 모델 개발 스타트업-스텝턴(阶跃星辰)	13
[기업분석] 인공지능 기업-바이촨 인텔리전스(百川智能)	15

KIC 뉴스

2026 중관춘포럼: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 포럼 개최 공고	18
-------------------------------------	----

CONTENTS

행사 정보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20

WEEKLY 뉴스



세계 최초, 아너 로봇폰'2026 세계이동통신대회(MWC)'에서 공개	1
중국 과학기술 분야 성과 잇따라, 국제적 관심 집중	2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6억 명 초과, 인공지능 특허 보유 규모 세계 최대 수준 기록	3
전국 양회 첫 '장관급 기자회견', AI·휴머노이드 로봇 등 주요 메시지 공개	4



세계 최초, 아너 로봇폰 '2026 세계이동통신대회(MWC)'에서 공개

3월 1일 저녁, 아너(Honor, 荣耀)가 개발한 로봇폰(Robot Phone)과 첫 번째 체화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2026 세계이동통신대회(MWC)'에서 공개됐다.

아너에 따르면 로봇폰에는 업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초소형 모터와 최소 크기의 4 자유도 짐벌 시스템이 적용됐다. 로봇의 유연한 '신체'와 아너 AI 에이전트의 '두뇌'를 결합해 생동감 있는 멀티모달 상호작용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3 축 기계식 손떨림 보정 짐벌 카메라와 2 억 화소 센서를 탑재해 안정적인 촬영과 피사체 추적, 카메라 움직임 제어 성능을 높였으며, 이로써 체화지능 기반의 새로운 영상 촬영 경험을 제시했다.

로봇폰은 아너 '알파 전략(Alpha Strategy)'에서 처음 공개된 신형 기종으로, 향후 단말 기기의 진화를 보여주는 시도이자 전략 실행 이후 나타난 변화를 보여주는 제품으로 평가된다.

2025 년 MWC 에서 아너는 '알파 전략(Alpha Strategy)'을 발표하고 글로벌 AI 단말기 생태계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제작, 스마트 생태계 확장, 스마트 세계 구현으로 이어지는 '3 단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 년 동안 아너는 스마트폰에서 AI 스마트폰, 그리고 로봇폰(Robot Phone)으로 기술 흐름을 확장하며 인간과 기기의 상호작용을 기존의 '수동적 반응'에서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시켰다. 동시에 '알파 스토어'를 글로벌 시장에 구축해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군의 AI 단말기를 연결하는 생태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간-기계 상호작용 등 12 개 첨단 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알파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성과를 실제 사용자 경험으로 연결하고 있다.

아너는 이번 전시회에서 첫 소비자용 체화지능 휴머노이드 로봇도 함께 공개됐다. 향후 스마트폰과 로봇 간 사용자 데이터 및 서비스 연동, AI 생태계 협력을 통해 '인간-기계-환경'이 함께 작동하는 지능형 서비스 환경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발표회에서는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Magic V6'도 공개했다. 이 스마트폰은 접었을 때 두께 8.75mm 의 초박형 디자인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수준을 구현했으며, 이는 최근 3 년 사이 네 번째 기록 경신이다. 또한 차세대 '칭하이후(青海湖) 블레이드 배터리'를 적용해 폴더블 스마트폰 최초로 배터리 용량을 7000mAh 이상으로 확대했다.(출처: 동방차이푸망)

중국 과학기술 분야 성과 잇따라, 국제적 관심 집중

지난주 중국은 에너지, 우주 생명과학, 천문 관측, 해양 공학 등 여러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발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는 난카이대학(南开大学)과 상하이우주전원연구소 공동 연구팀이 새로운 전해질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배터리의 부피나 무게를 늘리지 않으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행 거리를 크게 늘리고 저온 성능도 개선할 수 있어,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과학원 칭다오(青島) 바이오에너지·공정연구소는 구리, 아연, 주석, 황, 셀레늄 기반의 신형 태양전지 소재 효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소재는 비용 경쟁력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춰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주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과가 이어졌다. 중국 우주정거장에서 진행 중인 실험용 쥐 연구는 지난해 12 월 첫 번식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1 월과 2 월에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새끼 출산에 성공했다. 새끼들의 성장과 발달도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돼, 미세중력 환경에서도 생쥐가 여러 세대에 걸쳐 번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충칭대학(重庆大学) 연구팀은 '디얼(迪迳) 5 호' 우주선을 활용해 '우주 나비' 실험을 진행했다. 미세중력 환경에서 번데기가 스스로 우화해 날개를 펼치는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연구는 향후 심우주 탐사에 필요한 생명 유지 기술 연구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발표됐다. 중국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은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서브밀리미터 전파망원경(ALMA)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은하 중심부 이미지를 촬영했다. 이 이미지는 약 650 광년 이상에 걸친 영역을 담고 있으며,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의 밀집된 가스와 먼지 구름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화학 구조도 드러나, 극한 환경에서 별이 형성되고 진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 공학과 저공 경제의 융합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뤄졌다. 북부만 해역의 유전에서는 드론 시스템을 활용한 대규모 작업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연구팀은 자체 통신 기지국을 구축하고 베이더우(北斗) 위성의 고정밀 항법 시스템을 활용해 해상 통신 범위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거리 비행과 데이터 전송을 구현했다. 해당 사례는 해양 에너지 개발에서 드론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지난주 중국은 에너지, 우주 생명과학, 천문 관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발표했다. 기초 연구와 기술 응용을 아우르는 이번 성과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기술 발전과 국제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출처: 창장원신원)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6억 명 초과, 인공지능 특허 보유 규모 세계 최대 수준 기록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규모와 보급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발표한 제 57 차 <중국 인터넷 발전 현황 통계 보고서(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에 따르면 2025 년 중국 인터넷 발전의 주요 성과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됐다.

데이터와 연산 인프라 측면에서 중국은 현재 GPU 1만 장 규모의 AI 연산 클러스터 42 곳을 구축했으며, 전체 지능형 연산 능력 규모는 1590 EFLOPS를 넘어 세계 상위권 수준에 이르렀다. 동시에 산업용 고품질 데이터셋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5 년 말 기준, 중국에서 공개된 대형 모델은 1500 개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산 대형 모델의 영향력도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인공지능 기업 수는 6,000개를 넘어섰으며, 2025년 핵심 산업 규모는 1조 2,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00억 위안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 산업 투자펀드가 출범했고, 표준화 추진 사업을 통해 40여 개 핵심 기술 표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에이전트 프로토콜, 연산자 라이브러리 등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응용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은 전체 공장 업무의 70% 이상에 적용되고 있으며, 6,000개가 넘는 산업별 특화 모델이 개발됐다. 이를 기반으로 1,700여 종의 핵심 스마트 제조 장비와 산업용 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기업은 총 748곳에 이른다.

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5년 12월 기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는 6억 200만 명에 달해 2024년 말보다 141.7% 증가했다. 보급률은 42.8%로 전년 대비 25.2%p 상승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90% 이상이 중국산 대형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 성장 가능성과 국산화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인공지능 기초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관련 논문의 수와 영향력 모두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2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인공지능 특허의 약 60%를 차지해 최대 특허 보유국인 것으로 집계됐다.(출처: 신량차이징)

전국 양회 첫 '장관급 기자회견', AI·휴머노이드 로봇 등 주요 메시지 공개

3월 5일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첫 '부장통로(장관급 즉석 기자회견)'가 열렸다. 이날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 과학기술부: 기초 연구 투자 역대 최고

인허쥔(阴和俊) 과학기술부 장관은 2025년 중국의 전체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3조 9,20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GDP 대비 비중은 2.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초 연구 투자는 약 2,800억 위안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해 처음으로 7%를 넘어섰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의 혁신지수 순위도 세계 10위로 올라섰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춘절 갈라쇼 무대 시연을 넘어 실제 활용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오픈소스 대형 모델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기술 개발에서도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지난해 승인을 받은 혁신 신약은 76개에 달했으며, 해외 기술 이전 계약 규모는 1,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며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업정보화부: 중국 오픈소스 모델 다운로드 세계 1위

리러청(李乐成) 공업정보화부 장관은 중국의 오픈소스 대형 모델 다운로드 수가 세계 1위에 달한다고 밝혔다. AI 톨이 생산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규모 이상 제조업 기업의 AI 기술 활용률은 30%를 넘어섰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도 300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 장관은 AI 산업 발전 과정에서 발전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 활용되고, 인간을 위해 서비스하며,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 협력을 통해 AI 거버넌스 규범을 함께 모색하고, AI가 전 세계에 혜택을 주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앙 기업의 전략 신흥 산업 투자 확대

장위쥔(张玉卓) 주임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앙 기업의 자산 규모가 70조 위안, 80조 위안, 90조 위안을 차례로 넘어섰으며, 총이익은 이전 5개년 계획 기간보다 5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앙기업은 전략 신흥 산업 분야에서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첫째, 신에너지, 항공우주 등 선도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공고화시킨다. 중국은 현재 풍부한 재생 에너지 전력을 바탕으로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신에너지차 등 추격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중앙 기업 자체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10%에서 16.5%로 확대되었다.

셋째, 양자 정보, 핵융합, 저공 경제 등 육성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처: 양스신원)

참고자료

- ◆ 동방차이푸망(东方财富网). 세계 최초, 아너 로봇폰'2026 세계이동통신대회(MWC)'에서 공개
<https://finance.eastmoney.com/a/202603023657861536.html>
- ◆ 창장원신원(长江云新闻). 중국 과학기술 분야 성과 잇따라, 국제적 관심 집중
<https://baijiahao.baidu.com/s?id=1858547199246953769&wfr=spider&for=pc>
- ◆ 신랑차이징(新浪财经).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6 억 명 초과, 인공지능 특허 보유 규모 세계 최대 수준 기록
<https://baijiahao.baidu.com/s?id=1858596251603350965&wfr=spider&for=pc>
- ◆ 양스신원(央视新闻). 전국 양회 첫 '장관급 기자회견', AI·휴머노이드 로봇 등 주요 메시지 공개
<https://mp.weixin.qq.com/s/ZPOBiaoUhDg66-MXoVRK0w>

CHINA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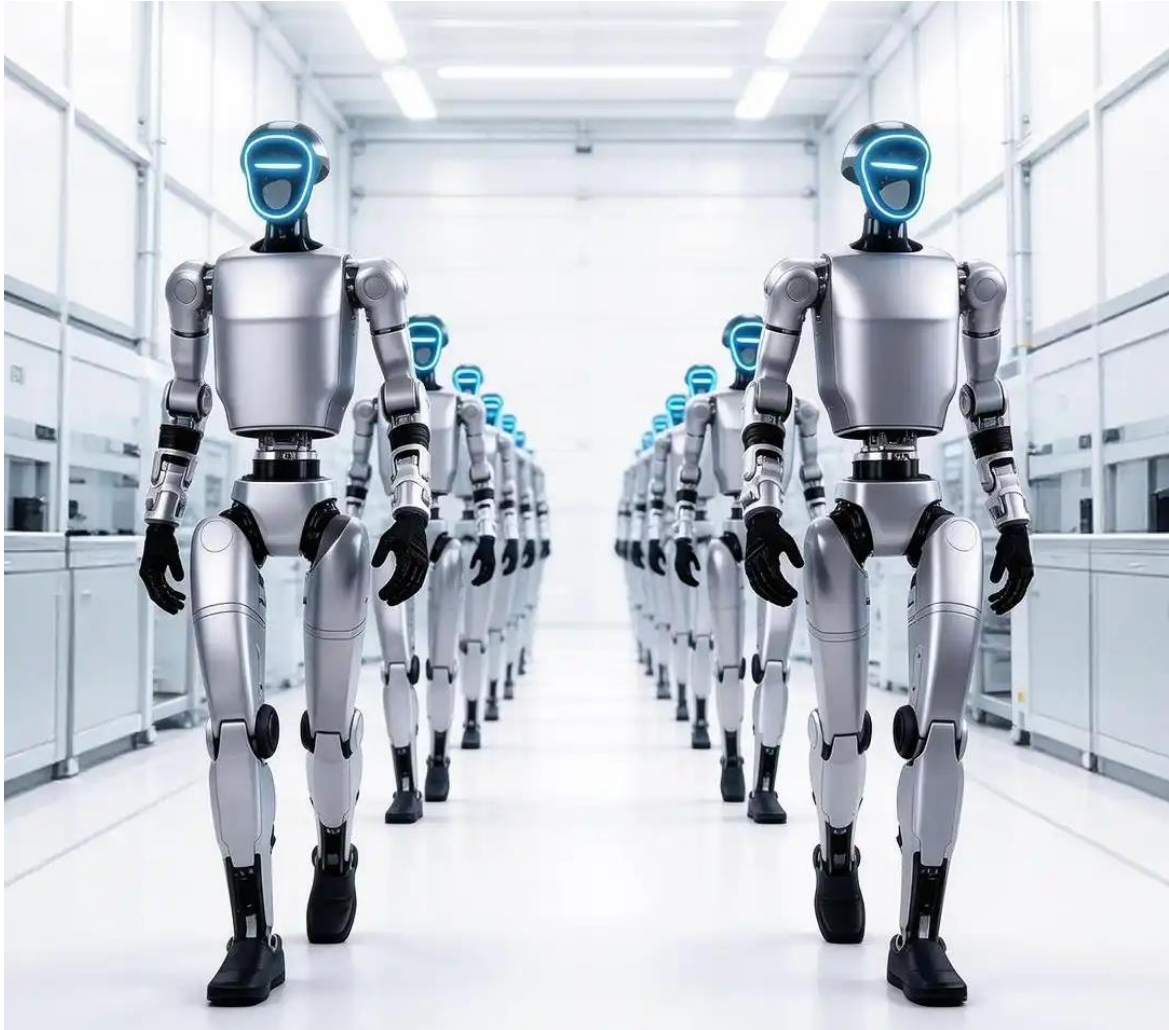


[산업분석] 출하량의 90% 차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가속화 배경	7
[산업분석] 집단 지능으로 여는 새 시대, '가치 중심 글로벌 진출'에 나선 중국 기업들	10
[기업분석] 범용 대형 모델 개발 스타트업-스텝핀(阶跃星辰)	13
[기업분석] 인공지능 기업-바이촨 인텔리전스(百川智能)	15



[산업분석] 출하량의 90% 차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가속화 배경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약 1만 3000대로, 중국이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출하량 기준 상위 6개 기업도 모두 중국 기업이었다. 옴디아는 이에 대해 "중국 공급사들이 양산 역량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흥 산업이 연구 단계를 넘어 대규모 양산에 이르고, 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십만 달러에서 10만 위안 이하로, 낮아진 가격 장벽

휴머노이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미국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Atlas)'나 피겨AI의 제품은 예상 가격이 대부분 10만 달러를 넘어, 일반 가정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큰 수준이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가격을 10만 위안 이하로 낮췄다. 애지봇(AGIBOT)의 '링시 X2 청춘판'은 9만 8000위안에 출시됐고, 유니트리(UNITREE)의

'Unitree G1'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8 만 4800 위안에 판매되고 있다. 가격 문턱이 낮아지면서 개인이 로봇을 소유하는 일도 더 이상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게 됐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격 역시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대기'에서 '당일 공급' 시대로, 확대된 공급망 경쟁력

중국의 강력한 제조업 공급망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과거 디지털 제품의 유통 중심지였던 선전 화창베이(华强北)는 고밀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나고 있다. 핵심 부품 공급과 엔지니어링 지원 체계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예전에는 해외에서 서보모터를 주문하면 배송까지 세 달이 걸렸지만, 이제는 화창베이에서 주문하면 오전에 주문한 부품을 당일 오후에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하모닉 감속기, 서보 구동 시스템 등 핵심 기술에서 해외 독점 구조를 깨며 비용을 크게 낮추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차 산업에서 구축된 높은 수준의 공급망은 로봇 분야에도 배터리·모터·전력제어 기술, 자율주행, 라이다 등 다양한 기술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비용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기술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한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 비용은 해외 대비 약 3분의 1 수준, 경우에 따라 그보다 더 낮은 것으로 추산된다.

공장에서 요양시설까지, 사회 전체로 적용 분야 확대

중국 로봇 산업의 또 다른 강점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다양한 활용 환경이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여러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 시험 운영되며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는 노인과 탁구를 치거나 휠체어를 밀어주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공공 공간에서는 커피 머신이나 아이스크림 기기를 조작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로봇은 이처럼 빠르게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정책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휴머노이드 로봇 오픈소스 커뮤니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이시는 관련 데이터셋 표준을 발표했다. 베이징은 정부 투자 펀드를 조성했고, 선전은 로봇 활용 가능 분야 리스트를 공개했다. 기업 측면에서도 참여 주체가 다양하다. 유니트리(宇树)와 애지봇(智元) 같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아너(荣耀) 등 대기업들도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수만 개 중소기업이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며 산업 발전 전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격차와 과제, '양적 확대'에서 '질적 도약'으로 전환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는 존재한다. 현재 중국의 경쟁우위는 공학적 구현과 산업 적용에 집중돼 있으며, 기초 분야인 비전·언어 대형 모델이나 월드 모델 등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선도 수준과 격차가 있다는 평가다. 개발 툴 체계와 개발자 생태계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국제 표준 제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생산 규모에 비해 충분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야만 산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0'에서 '1'로 나아가는 초기 단계를 지나 '1'에서 '100'으로 확장되는 빠른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강점을 바탕으로 역량을 축적한다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빠른 성장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도 확보하며 인간로봇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 런민르보(人民日报). 출하량의 90% 차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가속화 배경
<https://baijiahao.baidu.com/s?id=1858611599400056173>

[산업분석] 집단 지능으로 여는 새 시대, '가치 중심 글로벌 진출'에 나선 중국 기업들

2026 년 3 월 2 일~5 일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다. 이는 개최 20 주년을 맞는 이정표적 행사이며, 'The IQ Era(지능의 시대)'를 주제로 AI 와 통신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낼 미래를 조망한다.



20 년의 변화, 통신 업계 행사에서 글로벌 기술 플랫폼으로

20 년 전 MWC 가 칸에서 바르셀로나로 개최지를 옮겼을 당시에만 해도 약 5 만 5000 명이 참여하는 통신 업계 중심의 행사에 가까웠다. 그러나 현재는 관람객 10만 명 이상, 전 세계 2,9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기술 전시회로 성장했다. 비벡 바드리나트 GSMA 사무총장은 "2026 년 MWC 가 AI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한(斯寒) GSMA 중화권 대표는 "AI 와 네트워크 연결 기술의 결합이 인간의 통찰을 바탕으로 기술 진화를 이끌고, 지능형 기술을 통해 새로운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나아가 사회 전반의 변화를 동시에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표. MWC 20 년의 변화

2006 년	2026 년
참가자 5 만~6 만 명 주로 통신 사업자 3G 및 4G 관련 논의 통신 산업 컨퍼런스	참가자 10 만 명 이상 60%가 특정 산업 분야 출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위성 및 컴퓨팅 네트워크에 대해 논의 글로벌 디지털 경제 생태계

6 개 이니셔티브·6 개 전시존, 'The IQ Era'의 청사진 제시

이번 MWC는 스마트 인프라(5G-A와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지능형 연결 생태계(통신과 AI의 결합), 기업의 AI 전환(산업별 대형모델과 AI 활용), AI 허브(생성형 AI와 거버넌스), 기술의 보편적 혜택(디지털 접근성), 게임 체인저(위성통신 등 파괴적 혁신)의 여섯 가지 핵심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스페이스 X 대표의 참석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궤도 위성의 상용화 관련 최신 동향도 공유될 전망이다.

전시존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미래 공항' 전시존에서는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실물 규모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공개되며, '뉴 프런티어' 전시존에는 양자 기술과 위성통신, 체화지능 등 분야의 글로벌 혁신 기업 약 20 곳이 참여한다. 스타트업 전시존인 '4YFN'에서는 '무한한 AI'를 주제로 신생 기업들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통신 산업의 미래 판도를 바꿀 3대 기술 변화

이번 MWC에서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위성통신은 상용화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GSMA는 관련 주제로 고위급 토론 세션을 마련했으며, 저가 단말기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신 솔루션이 공개될 예정이다. AI 단말기 시장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주요 제조사들은 AI 기능을 강화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이며, '온디바이스 AI' 기술도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아너(HONOR, 荣耀)는 세계 최초의 소비자용 휴머노이드 로봇 '아너 ROBOT PHONE'을 공개해, AI와 체화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5G-A와 6G 기술 역시 빠르게 연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330 개 이상의 도시에서 5G-A 네트워크가 구축됐으며, 퀄컴 등 기업들은 6G와 AI의 결합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는 2030년 6G 상용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규모 중심 해외 진출'에서 '가치 중심 글로벌 전략'으로

이번 행사에서 중국 기업들은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기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MWC에는 중국 기업 약 350 곳이 참가해, 국가별 참가 기업 수 기준으로 3위를 기록했다. 5G-A의 대규모 상용화와 AI 에이전트 기술 확산 등 흐름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규모 중심의 해외 진출'에서 '가치 중심 글로벌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글로벌 시장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3 대 통신사도 이번 행사에 모두 참여해 스마트화 전환의 새로운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표. 중국의 3 대 통신사 참여 현황

구분	상황
차이나텔레콤	'클라우드·AI 기반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스마트 클라우드, 양자 기술, 저공 경제, 위성 네트워크 전략 소개
차이나모바일	글로벌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AI+' 산업별 지능형 솔루션 소개
차이나유니콤	연결, 컴퓨팅, 서비스, 보안 중심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 공개

인프라 및 솔루션 기업들 역시 대대적인 기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표. 인프라 및 솔루션 기업 참여 현황

구분	상황
화웨이(华为)	가치 중심의 AI 에이전트 기반 네트워크와 개방 혁신형 AI 인프라 전략 소개
중싱통신(ZTE)	AI 기반 네트워크 연결 기술과 지능형 컴퓨팅 인프라, 차세대 단말기 공개
중국신커(中国信科)	우주·항공·지상·해양 통합 네트워크 기반의 광통신 및 해양 통신 기술 공개
창페이광섬유(长飞光纤)	공심 반공진 광섬유, 초저손실 멀티 코어 광섬유 등 차세대 제품 공개
형통(亨通)	해저 통신과 광통신 등 다양한 솔루션 소개
아신테크(亚信科技)	디지털·지능형 기술과 클라우드 네트워크 제품 공개
장보롱(江波龙)	AI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체화지능 로봇을 위한 맞춤형 메모리 솔루션 공개
하오징테크(浩鲸科技)	AI Native와 Cloud Native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과 주권형 AI 인프라 소개
알리바바클라우드(阿里云)	최신 AI 기술과 혁신 성과 최초 공개

단말기 제조사들도 존재감을 키우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표. 단말기 제조사 참여 현황

구분	상황
아너(荣耀)	폴더블 플래그십 모델 'Magic V6'와 글로벌 최초 소비자용 휴머노이드 로봇 '아너 ROBOT PHONE' 공개
샤오미(小米)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샤오미 17 시리즈 발표를 통해 유럽 프리미엄 시장 공략 가속화, '사람 x차x집' 생태계 전략도 함께 강조
비보(vivo)	'X300 Ultra'의 글로벌 시장 출시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
ZTE 누비아(中兴努比亚)	바이트댄스와의 협업을 통해 차세대 AI 스마트폰 '더우바오(豆包)' 출시

MWC는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 과정을 함께해 왔다. 2026년 행사에 참가한 중국 기업 350 곳은 단순한 제품과 솔루션 소개를 넘어,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모이는 이번 행사에서 중국 기업들은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The IQ Era'가 그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참고자료

- ◆ 중귀공신신원망(中国工信新闻网). MWC 2026 | 집단 지능으로 여는 새 시대, '가치 중심 글로벌 진출'에 나선 중국 기업들
https://www.cnii.com.cn/gxxww/rmydb/202603/t20260301_722509.html

[기업분석] 범용 대형 모델 개발 스타트업-스텝펀(阶跃星辰)



기업 개요

스텝펀(StepFun, 阶跃星辰)은 범용 대형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범용 인공지능(AGI) 구현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2023년 4월 설립됐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연구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스텝(Step) 시리즈 범용 대형 모델을 공개해 언어, 멀티모달, 추론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모델 체계를 구축했으며, 개발자를 대상으로 업계 선도 수준의 멀티모달 대형 모델을 잇달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Step 시리즈 모델

■ 추론 대형모델

명칭	소개
step-3.5-flash	스텝펀의 대표 언어 추론 대형 모델로, 뛰어난 추론 능력과 빠르고 안정적인 실행 성능을 갖췄다. 복잡한 작업을 단계적으로 분해 및 계획할 수 있으며, 도구 호출을 통해 논리 추론, 수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심층 연구 등 다양한 복합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컨텍스트 길이: 256K)
step-3	강력한 시각 인식과 복합 추론 능력을 갖춘 모델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 이해와 수학 및 시각 정보 결합 분석, 일상 환경의 시각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컨텍스트 길이: 64K)
step-r1-v-mini	이미지 이해 능력을 갖춘 추론 대형모델로,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며, 심층 추론을 거쳐 텍스트 결과를 생성한다. 시각 추론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수학·코드·텍스트 추론 능력도 갖췄다. (컨텍스트 길이: 100K)

■ 텍스트 대형모델

명칭	소개
step-2-mini	차세대 자체 개발 Attention 구조 MFA 기반의 초고속 대형 모델로, 낮은 비용으로 Step-1과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면서 높은 처리량과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한다. 다양한 범용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코드 처리 능력이 강점이다. (컨텍스트 길이: 32K)
step-2	차세대 MoE 구조 기반 대형 모델로, 파라미터 규모가 1조 개를 넘어선다. 성능과 사용자 체감 성능, 계획 능력에서 글로벌 주요 대형 모델 수준에 근접했으며, 중국어·영어 환경의 다양한 활용 요구를 지원한다. Scaling Laws 연구 성과가 반영된 모델이다.
step-1	Step-1 시리즈는 수천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클래식 아키텍처 기반 대형 모델로,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텍스트 작성,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질의 응답, 논리 추론 등 사용자의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수학과 코드 처리 능력도 갖추고 있어 과학 계산과 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 실시간 음성 인터랙션 모델

명칭	소개
step-audio-2	중국어 표준어와 방언, 영어, 일본어를 이해하며 중국어와 영어로 대화형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주변 소리와 부언어적 신호,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음성을 통해 사용자 연령을 추정하거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말하기 속도와 억양, 감정을 조절해 표현할 수 있으며 Tool Call 과 인터넷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step-1o-audio	1세대 엔드투엔드 음성 모델로, 음성 생성 기능을 지원하며 다양한 음색 구현이 가능하다.

■ 비전 이해 대형모델

명칭	소개
step-1o-turbo-vision	이미지와 영상 이해 능력을 갖춘 모델로, 현재 텍스트·이미지·영상 입력을 지원하며 출력은 텍스트 생성 방식으로 제공된다. 수학·코드 처리 능력은 step-1o-vision-32k 보다 우수하며, 모델 규모는 더 작고 출력 속도는 더 빠르다. (컨텍스트 길이: 32K)
step-1v	이미지 이해 능력을 갖춘 모델로, 현재 텍스트와 이미지 입력을 지원하며 출력은 텍스트 생성 방식으로 제공된다. (컨텍스트 길이: 8K / 32K)

■ 음성 대형모델

명칭	소개
step-tts-2	Step-TTS-mini 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간결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기존 speaker/emotion 임베딩 모듈을 제거하고 순수 NTP 기반의 엔드투엔드 음성 생성을 구현해 시스템 복잡도를 낮췄다. Step-TTS-mini 의 음색·감정·스타일·언어를 모두 지원하며, 감정과 스타일의 제어 능력, 감정 표현력, 음색 재현 성능을 강화했다.

■ 이미지 생성·편집 모델

명칭	소개
step-2x-large	스텝펀의 차세대 이미지 생성 모델로,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미지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졌으며 중국어와 영어 텍스트 표현 생성 능력도 강화됐다.
step-1x-edit	이미지 편집에 특화된 모델로, 이미지와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이미지 수정과 향상 작업을 수행한다. 텍스트 설명과 예시 이미지 등 다양한 입력 형식을 지원하며, 사용자 의도에 맞는 이미지 편집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 Model Lab

명칭	소개
Step-GUI	Step-GUI 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작업을 위해 설계된 멀티모달 비전 대형 모델이다. 시각 이해, 단계별 추론, 동작 실행을 결합해 다양한 GUI 환경에서 연속적인 다단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스텝펀 웹사이트(阶跃星辰官网)
<https://www.stepfun.com/company>

[기업분석] 인공지능 기업-바이촨 인텔리전스(百川智能)



기업 개요

바이촨 인텔리전스(BaichuanIntelligence, 百川智能)는 2023년 3월 24일 왕샤오촨(王小川) 전 소거우(Sogou, 搜狗) CEO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이다. 회사는 언어 AI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의 핵심 대형 모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개발진은 소거우, 바이두,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주요 기술 기업 출신의 AI 연구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회사는 설립 100 일만에 Baichuan-7B와 Baichuan-13B 두 가지 중국어 버전 대형 모델을 공개했다. 두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돼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여러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다운로드 수는 100만 건을 넘어섰다.

제품 소개

■ 범용 모델

- Baichuan4-Turbo

기업 업무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모델이다. Baichuan4 대비 활용 가능성이 약 10% 이상 높아졌으며, 배포와 추론 비용이 낮고, 가격은 GPT-4o의 약 80% 수준이다. 첫 토큰 응답 속도와 토큰 처리 속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

- Baichuan4-Air

기업이 처음 도입한 PRI 아키텍처 기반 MoE 모델로, 기업 환경에 맞게 최적화됐다. 추론 비용을 크게 낮춰 호출 비용은 1,000 토큰당 약 0.00098 위안 수준이다. 모델 성능은 업계 상위권 수준이며 응답 속도 역시 주요 MoE 모델보다 빠른 편이다.

■ 오픈소스 모델

- Baichuan-M3 Plus

1월 22일 바이촨 인텔리전스는 Baichuan-M3 Plus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전문 의료 환경에

서의 질의응답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앞서 발표된 M3 모델의 성능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했다.

6 개 출처 기반 근거 검증 기술과 M3 기반 모델을 결합해 환각 발생률을 2.6% 수준으로 낮췄으며, 이는 Open Evidence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근거 연결 기술'을 적용해 인용 출처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AI 가 제시한 의학적 결론을 원 논문의 근거 구절과 연결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AI 의 의료적 판단을 검증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며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했다.

또한 바이촨 인텔리전스는 '하이나바이촨(海纳百川)' 계획을 발표하고, 근거 기반 의료 대형 모델을 API 형태로 중국 의료기관에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 Baichuan-M3

바이촨 인텔리전스는 1 월 13 일 차세대 오픈소스 의료 강화 대형 언어 모델 Baichuan-M3 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문진 능력과 의료 환각 제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HealthBench 와 HealthBench Hard 평가에서도 1 위를 기록했다. 성능 비교에서는 OpenAI GPT-5.2 를 앞섰으며, 일부 테스트에서는 의사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 Baichuan-M2-32B

Baichuan-M2-32B 는 바이촨 인텔리전스에서 출시한 두 번째 의료 추론 모델로, 의료 분야에 특화된 성능을 제공한다. 실제 의료 추론 작업을 위해 설계된 이 모델은 혁신적인 대규모 검증 시스템(Large Verifier System)을 기반으로 Qwen2.5-32B 를 확장한다. 실제 의료 문제에 대한 도메인별 미세 조정을 통해 탁월한 의료 성능을 달성하는 동시에 강력한 일반화 능력도 유지한다.

참고자료

- ◆ 바이촨 인텔리전스 웹사이트(百川智能官网)
<https://www.baichuan-ai.com/home>

KIC 뉴스



2026 중관춘포럼: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 포럼 개최 공고

18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20



[KIC 중국 포커스] 2026 중관촌포럼: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 포럼 개최 공고









中关村论坛
2026 ZGC FORUM

2026 중관촌 포럼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 포럼」

피지컬 AI 산업

- 시간: 2026년 3월 26일(목) 8:55-12:05
- 장소: 중관촌전시센터 2층 원명홀 (圓明厅)

포럼 소개

중관촌포럼은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급 플랫폼입니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한국연구재단 및 중국과학기술부등 유관기관과 공동 주최/주관하는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 포럼」은 4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양국 간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을 추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피지컬AI 산업을 주제로, 한·중 양국의 전문가 및 10개 관련 산업기업 대표가 참여하여 관련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행사 일정

- 08:55-09:00 ● 개막사
- 09:00-09:20 ● 축하
- 09:20-09:55 ● 기조 강연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원장 이재욱
북경대학교 컴퓨터학원 교수 황티에완(전 BAAI 원장)
- 09:55-10:25 ● 패널 토론
한·중 퍼지컬 AI 산업 발전 기회 및 도전
- 10:35-10:50 ● MOU 체결식
- 10:50-12:00 ● 퍼지컬 AI 분야 한·중 기업 IR
- 12:00-12:05 ● 폐막사



후원기관

(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중) 중국과학기술부

주최/주관기관

(한)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한국연구재단
(중)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중일한혁신협력센터,
베이징국제기술거래연맹(NICTC)



행사신청

신청마감: 3월 12일(목)

행사장 위치



- 주소: 중관촌전시센터 2층 원명홀
(北京市海淀区新建宫门路2号中关村展示中心2层, 圆明厅)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www.kicchina.org
info@kicchina.org

(중)+86 010-6780-8840
(한)+82 010-4084-1234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명칭	기간	장소	분야
2026 년(제 6 회) 오가노이드 대회 및 제 3 회 중국 오가노이드 전환 의학 대회	2026.03.20-2026.03.21	상하이	의료건강
보아오 아시아 포럼 2026 연례 회의	2026.03.24-2026.03.27	치웅하이	금융
제 16 회 중국 국제 청정에너지 박람회	2026.03.25-2026.03.27	베이징	에너지
2026 년 제 18 회 국제 석유 및 가스 산업 정상회의	2026.03.26-2026.03.27	베이징	에너지
해양 통신, 네트워크 및 신호 처리 국제 컨퍼런스(MCNSP2026)	2026.03.27-2026.03.29	산야	전자통신
인공지능 및 공학 국제 컨퍼런스(AI+E2026)	2026.03.27-2026.03.29	샤먼	인공지능
제 2 회 인공지능 및 재료 국제 학술대회(ICAIM2026)	2026.03.27-2026.03.29	창사	인공지능
2026 년 제 8 회 중국 국제 생물의학 학술대회 및 전시회	2026.04.09-2026.04.11	베이징	의료건강
제 12 회 국제 안티몬 포럼	2026.04.09-2026.04.10	청두	에너지
제 6 회 인공지능 및 산업기술응용 국제 컨퍼런스(AIITA2026)	2026.04.10-2026.04.12	충칭	인공지능
2026 년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2026.04.13-2026.04.14	홍콩	전자통신
GEIAAsia 2026 아시아 태평양 엠보싱 인텔리전스 및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주간	2026.04.14-2026.04.17	상하이	인공지능
제 18 회 국제 디지털 이미지 처리 학회(ICDIP2026)	2026.04.24-2026.04.26	샤먼	인공지능
제 9 회 국제 환경 및 에너지 공학 컨퍼런스(IC3E2026)	2026.04.24-2026.04.26	창사	에너지

트렌드 중국 창업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